**2021. 9. 8. [보도자료]**

**\*동 자료는 9월 8일(수) 오전 9시 30분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.**

|  |
| --- |
| **SK E&S, ‘수소모빌리티+쇼’에서 ‘수소 밸류체인의 미래’ 선보여**  - SK E&S, SK㈜와 공동으로 8~11일 ‘2021수소모빌리티+쇼’서 ‘SK 수소 밸류체인관’ 운영 - 수소 생산부터 유통, 소비까지 수소 산업 全 밸류체인 구축 전략 한 눈에 확인 가능 - 친환경 수소 생산 핵심 기술 ‘CCS 체험존’ 운영…탄소 포집·저장 프로세스 이해 도와 - 블루·청록·그린수소 라인업, 수소드론·지게차 전시 등 다채로운 컨텐츠로 수소 비전 제시 |

SK E&S가 국내 최대 규모 수소모빌리티 전시회에서 수소의 생산부터 유통, 소비에 이르는 친환경 수소 밸류체인(Value-Chain) 구축 전략을 선보이며 ‘글로벌 1위 수소 사업자’ 로의 발걸음에 속도를 낸다.

SK E&S는 8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‘2021수소모빌리티+쇼’에 참가해 ‘SK 수소 밸류체인관‘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.

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수소모빌리티+쇼는 12개국 150여개 국내외 수소 산업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수소모빌리티 및 충전인프라,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 전시 행사다.

SK그룹의 수소 사업 비전을 실행하는 주축 계열사인 SK E&S는 SK㈜와 함께 이번 전시회에서 SK그룹의 수소사업 추진 전략과 자사만의 경쟁력을 설명하고, SK그룹이 그리는 미래 수소 생태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.

‘SK 수소 밸류체인관’은 SK E&S가 추진하는 수소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5가지 공간으로 구성됐다.

먼저 ‘인트로 존(Intro Zone)’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 SK E&S의 역사와 수소사업 비전을 소개한다. 대형 스크린을 통해 SK E&S가 구축하려는 수소 밸류체인의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.

‘생산 존’은 SK E&S의 차별화된 액화수소와 블루수소 생산 계획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. 앞서 SK E&S는 2023년부터 부생수소 기반 액화수소 연 3만톤, 2025년부터 CO2를 제거한 친환경 블루수소 연 25만톤을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

또한 플러그파워(Plug Power)와 모놀리스(Monolith) 등 글로벌 수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청정 그린·청록수소[[1]](#footnote-1) 확대 계획도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. 플러그파워는 그린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해조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, 모놀리스는 세계 최초로 청록수소 대량생산에 성공한 기업이다. 플러그파워가 아마존, 월마트 등에 공급하고 있는 수소 지게차의 축소 모형과 모놀리스의 ‘카본블랙(Carbon Black)[[2]](#footnote-2)’ 제품도 함께 전시된다.

청정 블루수소 생산의 핵심 기술인 CCS[[3]](#footnote-3) 프로세스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'CCS 체험존'도 운영된다. LNG(액화천연가스)를 수소로 개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해 폐가스전에 영구 저장, 제거함으로써 친환경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을 3D모션그래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.

다음으로 ‘유통 존’에서는 2025년 전국 수소충전소 약 100개소 설치 목표와 함께 수소 유통 계획을 설명한다. 특히 2023년 액화수소 생산 계획과 연계하여, 기체수소와 비교한 액화수소의 장점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컨텐츠도 마련했다.

‘소비 존’에서는 SK E&S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액화수소드론을 전시한다. 이와 함께 수소모빌리티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포함해 SK E&S가 꿈꾸는 미래 수소사회를 대형 디오라마(축소 모형)로 선보인다.

마지막으로 ‘비전라운지’에서는 SK E&S가 꿈꾸는 친환경 미래 수소사회를 영상으로 구현했다.

SK E&S는 기존에 보유한 LNG 밸류체인 통합 역량을 기반으로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해 ‘글로벌 1위 수소 사업자’로 자리잡겠다는 비전을 최근 제시했다. 지난 3월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향후 5년 간 18조원을 수소 생태계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지난 1일 열린 ‘2021 미디어데이’에서는 수소 사업을 발판으로 2025년 기업가치를 35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‘파이낸셜 스토리’를 공개하기도 했다.

추형욱 SK E&S 대표이사 사장은 “SK E&S는 수소 밸류체인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 청정수소 사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유일한 기업”이라며 “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될 수소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‘SK 수소 밸류체인관’이 수소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.”고 밝혔다.

1. 청록수소: 메탄(CH4)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를 고온의 반응기에 주입해 수소와 고체탄소로 분해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수소. 생산과정에서 CO2가 발행하지 않아 친환경 청정 수소로 분류됨. [↑](#footnote-ref-1)
2. 카본블랙(Carbon Black): 청록수소 생산 과정의 부산물로 나오는 친환경 고체탄소. [↑](#footnote-ref-2)
3. CCS(Carbon Capture & Storage): 이산화탄소 포집 및 저장 기술로, 화석연료 생산 및 사용으로 인해 배출되는 이산화탄소를 대기로부터 격리해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하는 기술. [↑](#footnote-ref-3)